청주 흥덕고 : joyful U school

사물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에 영향을 준다. 획일적인 학교의 모습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음은 학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가 교회당이나 수퍼마켓처럼 마을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가정처럼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청주 흥덕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잃지 않는다. 그런 열정에 2005년 제6회 전국 아름다운 학교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교내에 무선 인터넷 시설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PDA를 활용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애정과 노력이 교정 곳곳에서 묻어난다.

'맹모삼천지교'를 꿈꾸는 고등학교

학교 현관 입구에 들어서면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세워 놓은 커다란 바윗돌과 마주하게 된다. 정면에는 서산대사의 설상초보(雪上初步)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우리가 말하는 맹모삼천(孟母三遷)이 교육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말해주듯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키우고자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현대판 맹모가 되어 정성을 쏟는다. 학교의 생태 환경과 시설의 미학적인 고려는 학생들의 성장 욕구를 자극해 생각과 의식을 바꾸게 하고 행동에 변화를 준다. 맹모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감성 교육, 아름다운 학교의 시작

흥덕고는 2003년에 설립되어 날로 발전하는 청주의 서부권을 대표하는 학생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로 발돋움하였다. "귀하게 키운 아이는 귀하게 된다"는 신념을 가진 곽정수 교장은 쾌적한 학교 환경의 조성과 면학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가꾸어 왔다.

특히, 학교가 주변 단지의 문화적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건축하였으며, 주위 환경과 어우러진 학교 건물의 배치와 조경은 미래의 학교 모습을 선도한다. 멀리 부모산이 학교를 감싸안고, 가까이는 아름다운 나날이라는 아파트가 학교와 조화를 이룬다. 더욱이 중정, 파고라 등 대지 내 다양한 휴게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을 공원화하여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였다. 시설 녹지를 소음 완충 공간으로 활용한 것도 돋보인다.

4,000여 평의 대지 위에 4층으로 설계된 본관은 자연 채광과 통풍을 최대한 고려하여 방사형 중앙 집중 배치로 36개의 수준별 이동 수업이 가능한 교과 교실형으로 되어 있으며, 어학실 등 20여 개의 특별교실로 꾸며졌다. 1층에는 상담실과 아트홀, 식당, 인쇄실 등이 있다. 2·3·4층에는 교무실이 학년별로 마련되어 있고, 교과별 교사실을 설치하였으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각층마다 원활한 이동 수업을 위한 홈베이스를 두고 라운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각 교실에는 반사광으로부터 학생들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곡면 흑판과 시청각 교육을 위한 54인치 대형 TV와 오디오 시설, ICT 교육을 위한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교사(校舍)는

지역난방을이용한냉 · 난방시설이완비되어있어쾌적하고아늑한분위기속에서학생들이학업에열중할수있도록하였으며, 각실마다통신및LAN망을구축하였다. 특히, 향후교육과정변화및시설확충에대비하여1개층수직증축이가능하도록기초및구조설계를하였다. 학교곳곳에자리잡은야외학습시설은교사와학생들의물리적거리를없애고, 청출어람(靑出於藍)의뜻을키울수있는열린광장으로발전하였다.

또한, 다양한장서가구비된도서실과지구촌시대를대비한어학실, 영양만점의식당, 건강과스트레스해소를위한체력단련실, 깨끗하고쾌적한화장실…. 이처럼잠자는아이들의1%를깨울수있는학습환경의조성은아름다운학교를만드는밑거름이되었다. 특히, 골든룰(The Golden Ruls)과이를구체화한청솔록은학생들에게타인을배려하고, 자신의꿈을실현시킬수있는첫걸음이되도록하였다. 또한, 장보고유적지역사기행이라는수학여행을도내최초로시도하여학생들의안목을크게바꾸어놓았다.

메마른학교주변의환경을개선하고, 생명의숲을가꾸어150년된소나무및수십여종의수목들이자태를뽐내며학교를푸른숲으로바꾸어놓았다. 교정의빈공간에는호박, 고추등을심어신선한먹거리재배과정을체험토록하였다. 그리고아트홀을조성하여회화및조각작품을전시하거나, 청주시립합창단초청공연을기획함으로써학생들의감성을자극하였다.

작은음악회.

개교이래처음으로졸업생을배출한흥덕고는이색적인졸업식행사를오후5시에치러화제가되었다. 졸업식이진행된현관아트홀은오페라하우스를연상케한다. 1, 2층으로나눠자리한학생과학부모들은전면에펼쳐진스크린을통해실시간동영상으로졸업식행사를지켜볼수있도록했다. 그리고타임캡슐조형물제막식이이뤄졌다. 본관앞화단에위치한타임캡슐은‘흥덕인의꿈, 함께그러나다르게’라는이름의조형물과각졸업연도별로타임캡슐이마련돼20년후의만남을약속하였다. 특히, 전교생의수능성적일람표를타임캡슐에넣어행복은성적순이아님을깨닫고시련에적극적으로맞서는자신감을갖도록한것이마음에와닿는다.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 아름답다

아름다운학교는아이들에게행복을선사하고그들만의시간과시절을아름답게가꾸어줄수있는분위기를마련한다. 흥덕고는학교형태가일자형이아닌‘卍’모양이어서호기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 특히, 학교벽에붙어있는교훈이기도한‘함께그러나다르게’란표어가학교의아름다움을말해주는듯했다.

외부인들이학교에처음들어오면미술관으로착각할만큼그림들과각종조각들이많아미적수준을높여준다. 또한, 빛의마당이란곳으로나가면햇살아래서풀들과나무를바라보며마음의안정을얻을수있다. 미래에대한불안감과공부에대한스트레스를예술작품과자연을느끼며이겨낼수있도록한학교의정성스런배려에마음이따뜻해진다.

서산대사의설상초보.

빛의마당.

지역주민을위한쉼터.

김춘수시인의‘꽃’이란시에서처럼학교가학생들의이름을불러주었을때, 학생들은아름다운향기를뿜어낸다. 학생들의향기에교사는물론학부모및지역주민들또한밝게웃는학생들의모습에서일상의피곤함을떨쳐낸다. 학생들의이름이야말로학교를살아숨쉬게하는사랑스런손짓이다. 이렇듯학교는희망의싹을틔우는곳이며, 꿈을가꾸는곳이다. 학교는학생들이있어아름답다.

정관영
충북교육청건축사무관(공학박사)